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0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19일(음력 7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 진관사서 "대한독립 만세"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8월 12일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 · 중국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멕시코 5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은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 등 독립운동 문화유산을 마주하며 선조들의 뜻을 되새겼다. 사진은 진관사 스님과 참가자들이 '진관사 태극기'를 앞에 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 글 · 사진=박지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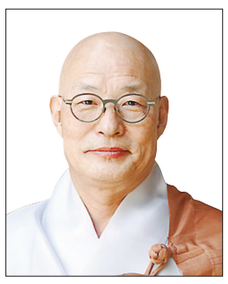
후보등록 완료…총무원장 선거 본격화

8월 11~13일 후보등록 접수 진행
선관위, 추첨 통해 후보 기호 확정
1번 경우 · 2번 정념 · 3번 진우 스님
후보들, 종정 예방 후 본격 유세전
9월 3일 오후 1시 총무원장 선거

김내영 · 이현희 기자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8월 11일 당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진우·정념·경우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에 입후보 서류를 접수했다. 진우 스님 대리인으로는 중앙종회 의원 덕유 스님이, 정념 스님은 법흥사 주지 삼혜 스님이, 경우 스님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자공 스님이 참석했다. 대리인 스님들이 접수 시간 전에 도착함에 따라 기호는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대리인 포함)가 도착한 경우 즉석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경우 스님, 기호 2번은 정념 스님, 기호 3번은 진우 스님으로 배정됐다. 8월 13일 마감까지 추가적인 후보등록은 이뤄지지 않아 중앙선관위는 선거 후보를 경우·정념·진우 스님 3명으로 확정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순창 만일사·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호법국장·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선운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0년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7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자 스님들은 첫 행보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진우 스님은 8월 12일 오후 4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으며, 경우·정념 스님은 8월 14일 새벽 6시 20분 성파 스님을 예방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후보등록을 완료한 중앙선관위는 8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8월 19~21일에는 전국 교구본사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가 열리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총 321명이 선거에서 투표하게 된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진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5개 불교시민사회단체는 8월 10일 '공명선거모니터단'을 발족하고 선거인단 선출 참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보도 유감"

SBS, 8월 5 · 6일 연속 보도
조계종 "불교 예산만 검증"
"미흡한 부분은 점검 강화"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SBS가 보도한 템플스테이 및 종교문화시설 운영 관련 보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SBS 보도는 일부 사찰 사례만 부각해 템플스테이와 종교문화시설의 공익적 가치와 종합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여도와 문화관광 효과,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불교 관련 예산만 선택적으로 검증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SBS의 사전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종단의 설명이 실제 보도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거론된 사찰 카페의 경우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시설"이라고 바로잡고, 운영이 중단된 일부 시설은 안전 문제 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였음에도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단정한 것은 사찰과 문화체험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문제가 제기된 사찰들을 철저히 점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운영 현황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국민들께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업단은 신륵사와 반야사 등의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 신중일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8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9월 1일 오후 1시 대법륜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오는 9월 1일 개최한다.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 스님)는 8월 10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9월 1일 오후 1시 대법륜전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정념 스님의 사직에 따른 후임 선출을 위해 치러진다.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22년 6개월여간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나, 지난 7월 3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후보자 등록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8월 19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입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거주승 신고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구성원명부 열람 기간은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총무원장 후보자 인터뷰·주요 공약 4·5·6·7·8·9면

佛敎中興, '시작된 변화, 도약의 완성'

기호 3
진우스님

공의(公議)를 모으고,
공감(共感)하고,
공심(公心)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더 많이 사부대중과 공감하며,
더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로 실천하겠습니다.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 정착
비구니스님의 실질적인 권익향상
출가부터 열반까지 승려 복지 완성
불교문화 콘텐츠 다각화, 종단 재정 선순환 구조 정착
교구 본말사 역량 강화(지역사찰이 지역 사회문화 선도)
교육과 수행 환경 혁신
AI와 뉴미디어 포교 도입, 청년 포교 활성화
전통선에 기반한 선명상 대중화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 세계적 브랜드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스님 선거대책위원회